한마루

2024 • 41호

보호치료시설 효광원

한마루

한마루는 「남보다 훨씬 뛰어난,
걸출하다」는 순 우리말입니다.

2024년 vol.41

발행일 2025년 1월 20일
발행처 보호치료시설 효광원
발행인 김현
주소 대전광역시 동구 산내로 1305번길 48

보호치료시설효광원
www.hyokwang.or.kr

전화 042.271.7053 팩스 042.271.5775

한마루에 실린 글이나 자료를 효광원의 동의없이 무단 복사, 전재하는 것을 금합니다.

Contents

마중물
04 교사의 글 사회복지사 이창희

효우리 이야기
06 퇴소자의 글 방○현
08 재원아동의 글 정○셉

효광원 프로그램
10 2024년 하반기 기획사업
12 주요사업
13 집단상담

훈훈한 '톡톡' (talk talk)
14 개원40주년 기념 행사 및 미사
16 제1회 효우리 예술제 소감문
18 국토횡단 8기 소감문
20 보호자 캠프 소감문

시설 안내
21 운동장 개방, 전기충전 사용

따듯한 손길, 아름다운 마음
22 후원금, 물품내역
23 후원금 지정보고 및 후원방법

표지사진_ 2024년 제1회 효우리 예술제

제1회 효우리 예술제는 재원 아동들의 재능과 끼를 발산하여
다양한 예술 공연 체험을 통해 성취감과 스트레스 해소의 동기를 부여하였음.

나의 길

writer. 이창희 사회복지사

사회복지사의 길

고등학교 시절 대학 원서를 쓸 시기에 아직도 무엇이 하고 싶은지 정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제가 하고 싶은 것을 찾지 못하고 내 의지가 아닌 타인의 조언으로 철도관련 학과에 진학을 했습니다. 진학 후 대학을 다니며 강의를 듣는 내내 전혀 흥미가 생기지 않았고 '이 길은 나와 맞지 않는 길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결국 완전히 흥미를 잃어버린 저는 대학 강의에 제대로 참여를 하지 않은 채 받아 든 1학년 성적표에서 처참한 숫자와 문자들을 마주했습니다. 대학교 1학년을 마쳤음에도 제가 하고 싶은 일을 정확히 찾지 못한 채로 군대에 입대하였습니다.

전역을 앞두고 덜컥 겁이 났습니다. 전역 이후에 철도 관련 학과에 계속해서 재학하는 것은 원하지 않는 상태였고, 그렇다면 다른 길을 찾아야하는데 그동안 진지하게 고민을 해본 적이 없어 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고 그와 관련된 일을 하자는 생각을 갖게 되었고 사람을 만나고 사람과 대화하고 부딪치는 것을 좋아하던 저는 사회복지사라는 직업에 관심을 갖게됩니다.

군대 전역 후 사회복지학과로 과를 옮긴 이후 강의에 흥미가 생겼고, 대학 생활이 재미있어 졌습니다. 아동과 청소년들에게 관심이 있던 저는 효광원을 알게 되었고 이곳에서 저의 꿈을 펼쳐나가게 됩니다.

효우리들과의 동행

첫 출근을 하고 아이들에게서 인사를 하기 위해 강당으로 이동했습니다. 이동하면서 '아이들이 내 인사를 받아줄까?'라는 걱정을 했습니다. 강당 앞에 서서 아동들을 바라보며 자기소개를 하고 인사를 했습니다. 그러자 아동들은 제 우려와 달리 박수를 쳐주고 "안녕하세요"라고 크게 인사를 해주었습니다. 인사를 마치고 강당에서 나온 저는 순간 머리를 한 대 맞은 것처럼 '띵'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앞서 한 걱정들은 기우였구나. 부딪치기 전에 판단하거나 괜한 걱정은 하지말자.'라고 마음을 먹게 되었고, 아동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아동들을 위해 일을 할 수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뛰기 시작했고 그렇게 효우리들과의 동행이 시작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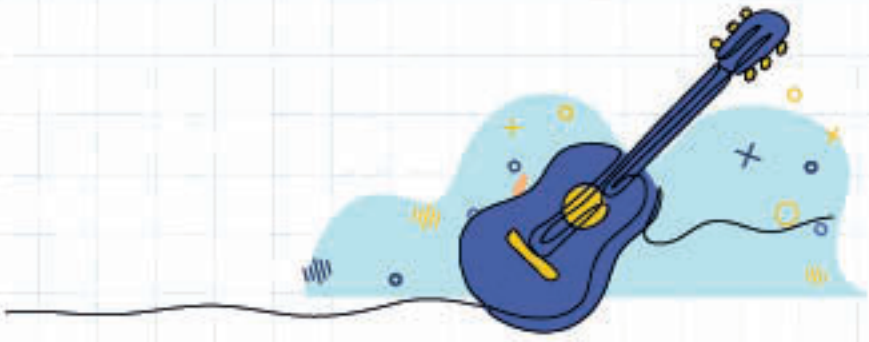
반성과 다짐

당직근무를 서고 있던 어느 날, 한 아이가 찾아와 저에게 오목을 두실 줄 아냐고 물었습니다. 그 아이는 저와 평소에 대화를 많이 나눈 적이 없던 아이였습니다. 그 아이와 오목을 두기 시작했고 그 중 그 아이가 저에게 "선생님 반 아이들은 참 좋을 것 같아요"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 이유를 묻자 그 아이는 "선생님은 나이가 젊으셔서 저희들의 마음을 조금 더 잘 이해해 주실 것 같아요"라고 대답을 하였습니다. 아이의 말 한 마디를 듣고 저는 반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을 이해하려고 하기보다는 '쟤는 왜 저렇게 행동하지?'라는 의문점을 가진 적도 있었고 단순히 규칙을 어기거나 잘못된 행동을 하면 이해하려는 시도조차 해보지 않고 혼내고 다그치기만 했던 제가 부끄러워졌습니다.

제게 아이들은 가르치고 돌봄의 대상이라고 생각을 하였지 아이로부터 무언가 깨닫고 배울 것이라는 생각해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한 아이가 아무렇지 않게 내뱉었을지도 모르는 그 한마디를 통해 저는 생각에 전환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 아이가 저에게 던진 그 한마디는 앞으로 제가 아동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로서 계속해서 되새기고 가슴에 안고 갈 가르침이 될 것입니다.

인성과 바른태도를 배움

writer. 방O현 퇴소자



안녕 효우리 노학용 선생님반 에이스이며 장난꾸러기인 방O현입니다.
저는 5월20일 효광원에 오게 되었습니다. 신입반 생활을 무난히 잘하고 본 방 13호실 노학용 선생님 반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본 방에서 생활을 하던 중 들뜬 나머지 효우리와 그라운드를 하여 첫 번째 교사참도움을 받았습니다.
그 이후 저는 생활을 잘 해야지 하고 생각을 했지만 한달도 지나지 않아 다른 효우리를 폭행하여 두 번째 교사참도움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연달아 교사참도움을 받게 된 저는 '이대로는 집에 못가고 효광원에서도 못 살겠구나'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열심히 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생활을 하자 제게 걸려있던 가간연장 1개월 재평가 징계도 깍게 되고 선생님들께도 인정을 받게 되어 어느새 상위 성장단계인 이끄미가 되었습니다. 이끄미까지 상승하면서 하락의 위기도 있었고 많은 유혹이 있었는데 저를 좋아해 주시던 선생님들을 생각하며 잘 참아 냈기에 이렇게 퇴소 인사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곳 효광원에서 천주교 신자가 되는 세례를 받았고, 권영석 선생님께 기타도 배우고, 가족의 소중함과 자유의 소중함까지 여러 가지를 느꼈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인성과 바른 태도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참여하였는데 국토횡단과 보호자 교육이 정말 기억에 많이 남았습니다. 왜냐하면 사회에 있을 때는 부모님 생각을 하지 않고 맨날 놀 궁리만해서 부모님과 이야기할 시간이 없었는데 보호자 캠프 프로그램 덕분에 대화를 하며 부모님의 생각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효광원에서 생활하면서 '공동체 생활이 참 힘들고, 호락호락하지 않다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억울한 상황에서 저는 말보다 행동이 앞서 후회할 때가 많았는데 공동체 생활에 적응 하다보니 예전과 다르게 억울한 상황을 만들지 않고 좋은 상황으로 개선해 나가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생활하다 보니 점점 바뀌어 가는 자신을 보게 되었고 나도 이렇게 바뀔 수 있다는 점에 놀라며 마음만 먹으면 뭐든지 할 수 있는 자신감을 깨달았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후회되는 행동을 하지 말고 6개월이라는 시간을 의미있는 시간이 되도록 노력하라는 말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모든 선생님에게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특히 권영석 선생님에게 기타를 배우지 않았다면 정상 퇴소가 힘들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또 담임이신 노학용 선생님 저를 끝까지 말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수녀님, 심귀섭 선생님 저를 좋아해주시고 기타를 계속 배울 수 있게 지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효광원 퇴소 후 기타를 계속 배우고 치면서 보호관찰을 성실히 받고 불량 교우들과 어울리지 않을 것이며, 부모님께는 효도하는 아들이 되겠습니다.

가자 갈릴레아로.

writer. 정○셉 재원아동

안녕 효우리 김현웅 선생님 반 도우미 정○셉입니다.
짧고 굵게 6개월의 생활과 느낀 점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제가 제일 많이 느낀 점을 간단하게 요약하여 이야기하자면 "후회할 때는 이미 늦었다"입니다. 그리고 효광원에서 어깨 올리고 생활해봤자 본인 손해만 커집니다. 나중에 뒤돌아서 생각해 보면 그렇게 행동했던 자신만 추해지고, 부끄럽기만 할 것입니다. 그러니 괜히 어깨에 힘주어서 생활하시다가 사고 쳐서 후회하지 마시고 효광원에서 만큼은 어깨 내리는 게 정답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형은 형답게 동생은 동생답게 서로 존중하며 생활해 주세요.
제가 이렇게 공개적으로 이야기해도 듣지 않는 효우리도 있겠지만 지금 이 말을 잘 듣고 이해하는 효우리들은 일상생활이 크게 힘들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효광원에서의 6개월이라는 시간이 그렇게 빨리 가지도 느리게 가지도 않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지내는 시간은 우리 모두에게 공평하게 흘러가니 누군가가 더 빨리 나간다고 부러워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또한 한번 살아가는 인생인 만큼 더욱 신중하게 선택하시고 나에게 있는 것들에 감사하며, 본인 현재의 시간을 잘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효광원에서 우리들은 잘 풀린 미래에 관해서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그 미래를 실현하기 위한 행동과 노력으로 옮긴 효우리들은 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이제부터 행동하며 실천하면 좋겠습니다. 좋은 습관을 기르고 정상퇴소를 한다면, 성공하는 길에 한 걸음 더 다가가는 효우리들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효우리들의 정상 퇴소를 응원하며 이야기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효광원 **기획사업**

1 사업명
효광원 보호자교육

지원기관
효광원 자체

사업기간
2024년 1월-12월

사업목적 가족기능 강화프로그램인 보호자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가정의 역할 회복과 재구조화를 통해 아동의 재비행을 방지하고, 원가정으로의 복귀를 지원하는 목적의 사업.

사업대상 보호자특별교육명령 대상자(보호 청소년과 보호자) 또는 자발적 참여자(보호 청소년과 보호자)

---

2 사업명
제1회 효우리 예술제

지원기관
천주교 대전교구 교정사목부

사업기간
연중 1회

사업목적 재원 아동들이 재능과 끼를 발산하고, 다양한 예술 공연 체험을 통해 성취감과 스트레스 해소를 제공하였음.

사업대상 보호치료시설 효광원에 입소중인 위탁 보호소년

2024 하반기

3 사업명
함께하는
행복 가득 숲속 힐링여행

자원기관
국립산림치유원

사업기간
2024년 7월

사업목적 보호소년의 숲속 체험을 통한 현장학습 및 다양한 경험과 체험을 통해 아동의 정서함양 및 긍정적 변화에 대한 동기부여

사업대상 보호치료시설 효광원에 입소중인 위탁 보호소년

---

4 사업명
하계 방학 레포츠데이

자원기관
복권위원회
대전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사업기간
2024년 하계 방학

사업목적 보호소년의 레포츠 활동을 통한 정서적 안정 및 스트레스 해소와 새로운 경험 습득

사업대상 보호치료시설 효광원에 입소중인 위탁 보호소년

주요 사업

국토종단 및 횡단

심신의 역경을 극복할 수 있는 강인한 정신력을 배양하고 건전한 사회인의 자세 등을 배워 보호치료 목적 달성에 기여함. 동시에 입소 청소년들에게 자신감을 향상하기 위한 체험형 프로그램

연간 2회 실시 [2박 3일(5월, 10월)]

보호자교육

각 법원에서 교육 이수 명령을 받은 입소 아동들과 그들의 보호자가 효광원에서 진행하는 보호자 교육을 통해서 교육 이수 명령과 함께 가족관계 회복을 기하는 프로그램

월 1회 8시간 실시

상위 성장단계 외출 프로그램

보호소년이 정해진 비용과 시간 안에서 계획적인 활동을 함으로써 책임과 약속을 배우고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를 할 수 있도록 도움.

2024년 1월-12월

담임과의 추억 쌓기

외부활동 및 실내 레포츠를 통한 정서적 안정과 담임 교사와 관계 형성을 통해 친밀감과 유대감 향상을 도모함.

방학 프로그램기간 1-2, 7-8

집단 상담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두드림(Do Dream)

꿈:드림, '꿈을 드림'(드리다의 명사형)이라는 중의적인 표현으로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새로운 꿈과 희망을 주는 프로그램.

연간 3회 실시

안전요원자격증 프로그램

심폐소생술을 포함한 안전요원 교육과정을 운영함으로서 주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대비하여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함.

연간 2회 실시

금연중독 치료집단

흡연의 경각심을 일깨워 호기심과 욕구를 해소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으며 금연치료 프로그램을 통해 흡연 욕구를 줄여 금연에 대한 의지를 강화시키고자 함. 금연을 성공해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함.

연간 4회 실시

마음을 치유하는 통합미술

하나의 분야가 아닌 여러 가지 미술 분야를 접해 보며 참여 아동들의 긍정 · 부정적인 마음을 해소하고 소통하여 타인에 대한 믿음, 자신감, 배려심 등을 향상을 지원함.

6월~9월

개원40주년 기념행사 & 미사

2024년 9월 9일 효광원 개원 40주년 기념행사와 미사 진행

아동보호치료시설 효광원이 올해로 40주년을 맞이하였습니다. 1984년 설립된 우리나라 첫 번째 아동보호치료시설로서 청소년들의 몸과 마음의 안식처가 되어왔고, 청소년들이 어려움을 딛고 당당한 사회구성원으로 꿈을 꾸며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 왔습니다. 김종수 주교님과 그동안 응원해주시고 후원해 주신 분들을 모시고 식수와 창립 신부님의 흉상을 기념하는 행사와 미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제1회 효우리 예술제

2024년 9월 3일 제1회 효우리 예술제 진행

연극, 그룹사운드, 합창, 교사 댄스 등 재원 아동들이 재능과 끼를 발산하고,
다양한 예술 공연 체험을 통해 성취감과 스트레스 해소를 제공하였음.

너무 인상깊었고
특히 연극이 너무 재미있었다.
허○호

처음에는 힘들었는데
하고나니 보람이었었습니다.
다음에도 참여하고 싶습니다.
장○원

예술제 후원해주신
선생님들 감사하고 2달의
준비시간동안 힘들게
준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김○형

이번예술제로 인해 저에게도
희망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꼭 나중에도
참여하겠습니다.
김○중

너무 재미있었고 선생님 댄스가
많이 웃겼습니다.
이○약

앞으로 이런 프로그램이
많이 생기면 스트레스가
해소될 것 같습니다.
안○원

다같이 한마음이 되어서
공연하고 연극하는 걸 보니
감동을 받으며 본받을수
있던 것 같습니다.
주○훈

국토횡단

2024년 10월 23일~25일

국토횡단 8기 "독도에서 첨성단까지 가온길을 찾아서" 프로그램 진행

횡단 최종회기로 남양주시청 1청사에서 시작하여 강화도 마니산 참성단 등산으로 종료.
극한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이를 극복하여 결여된 자신감과 자존감을 회복하고 건전한 사회구성원의 자세를 익히는 시간이었다.

Q 이번 국토횡단을 참여하며 느낀 점이 있었나요?

A 3일 동안 국토횡단을 통해서 건강해지는 것 같아서 너무 좋았습니다. 마지막 날에 등산이 힘들었는데 정상에 올라가니 부듯하고 기분이 좋았습니다.
앞으로 어렵고 힘들어도 이렇게 참고 견디며 목표를 이룰 수 있는 경험을 하게되어 저 자신에게 큰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내일이 퇴소인데 나가서 성실하게 잘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수

Q 국토횡단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 하나를 정한다면 무엇일까요?

A 1일 차에 남양주시청에서 시작해서 도서관까지 걸어갔는데 별로 힘들지는 않았는데 그래도 좋고 아무도 포기 안 해서 좋았다. 2일 차는 도서관에서 국회의사당까지 걸어갔다. 총 2일 동안 40KM를 걸었다. 그래서 좋았다. 두 번째에서도 아무도 포기 안 하고 열심히 했다. 그리고 다른 효우리들도 파이팅하고 함이 많이 났다.
3일 차에서는 천사에 계단이라고 하는 엄청 많은 계단길이 있었지만 그래도 나는 포기 안 하고 끝까지 올라갔다. 다 올라가니까 너무 좋고 이번 국토횡단을 오길 잘했다는 생각이 든다.
그래서 너무 좋았다.

이○준

Q 국토횡단에 참여한 소감을 멋지게 적어주세요

A 국토를 하면서 정말 나의 한계가 있을 까 하는 마음에 계속 참고 코스별로 완주하면서 부듯함과 같이 걷고 있는 효우리들과 선생님들 보면서 혼자 있으면 못 할 거 같다는 생각도 들고 앞으로 인생을 살 때 나에게도 3일 차 코스처럼 인생의 내리막도 있고 오르막도 있는데 이렇게 높은 오르막도 정상까지 가는데 앞으로 살면서 못할 게 없을 것 같은 부듯함도 느꼈다.

최○르

보호자 교육 소감문

하루 동안 아들과 점심, 저녁도 먹고 음식도 너무 맛있어서 감사드립니다. 수지 에니어그램을 통해 가족들의 성향도 알고 너무 뜻깊은 수업이었습니다. 선생님들께서 너무 고생하셔서 죄송한 마음도 듭니다.

유익하고 몰랐던 점을 배우게 됐고 더 나은 가족을 이루는데 큰 역할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지에니어그램 이라는 프로그램을 처음 해보았는데 아이와의 관계, 아내와의 관계가 더욱 돈독하고 친밀해졌습니다.

내 아이에 대해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본래 기질에 대해서 이번 교육을 통해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된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이렇게 유익한 교육을 준비해 주신 모든 선생님과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아이와 함께 걸어갈 길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우리 아들이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있어 좋았고, 자신의 심리 상태와 아내의 성향을 알 수 있었던 점이 제일 좋았습니다.

어색해서 못했던 말들을 이번 계기로 서로 말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아이의 성격 유형에 대해 설명을 듣고 아이를 더 이해하고, 아이에게 맞게 더 잘 생활할 수 있을 것 같은 자신감도 얻은 것 같습니다.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서로의 마음을 다시 한번 이해할 수 있는 거 같아 좋았습니다.

조금이나마 아들에 대해 알아가는 것 같아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나중에 집에서도 잊지 않고 노력하겠습니다.

효광원 **시설 안내**

운동장 개방

개방시간 토요일 **15:00-17:00**
공휴일 **09:00-17:00**

준수사항
1. 오토바이, 자전거, 인라인 스케이트 출입금지
2. 애완견 출입금지
3. 화기사용금지
4. 흡연, 음주, 취사, 고성방가 절대금지
5. 시설물 파손시 변상 조치함.

운동장 사용시 시설장 사전 승인 후 사용 가능합니다.
문의 전화 **042-271-7053**

전기충전시설 사용

개방시간 월요일-토요일 **09:00-19:00**
공휴일 불가

준수사항
1. 자동차 전원 차단
2. 충전시 시설내 배회 금지
3. 화기사용금지
4. 흡연, 음주, 취사, 고성방가 절대금지
5. 시설물 파손시 변상 조치함
6. 시설내 아동과 대화 금지

따듯한 손길, 아름다운 마음

후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변화하고자 노력하는 예쁜 아이들을 위해 소중하게 사용하겠습니다.

2024년도 하반기 후원금 내역

강만식, 강재언, 거룩한말씀회 수녀원, 권영명, 규암성당, 김광혜, 김명희, 김민석, 김상도, 김상훈, 김성희, 김양순, 김왕수, 김용대, 김용호, 김은자, 김재동, 김정수, 김향미, 김현, 김현수(행복한수치과), 김현주, 내동성당, 논산시사람꽃복지관, 대덕구장애인종합복지관, 대덕종합사회복지관, 대전가톨릭 간호사회, 대전가톨릭가정성폭력통합상담소, 대전가톨릭노인복지센터, 대전교구사회복지국, 대전모이세, 대전성모병원 간호부, 대전성모케어센터, 대전은행동 종합금융센터, 문창동성당, 미리암, 민준기, 박미라, 박영자, 박오병, 박진구, 배성환, 배정현(세종플란트치과), 버드내성당, 변해영, 부여 규암성당 교우, 불휘햇빛이사장, 서충삼, 성남동성당, 성우보육원, 세종장애인주간보호센터, 세종충남가톨릭사회복지회, 손병재, 손연경, 송지영, 신정자, 신평 천주교, 신혜영, 심재광, 쌍용2동성당, 안두현, 안상길, 안성준, 안영선, 오세정, 와인 조경, 윤경희, 이강호, 이레네, 이름스틸, 이순덕(삽교성당), 이협수(이앤장치과), 이형석, 이혜진, 장윤정, 장호영, 전의 요셉의집, 정규순, 정순남, 정영순, 조이순, 조현분, 주혜진, 진해해사성당, (재)재철회관, 천안 구룡동성당, 천주교 대전교구 교정사목부, 충남이주여성상담소, 코밴아이러브피플, 평신도사도직단체협의회, 한결엠, 한끼100원나눔운동본부, 한마음회, 한정현주교님, 햇살한줌, 홍산성당

2024년도 하반기 후원물품 내역

가마치통닭, 계룡건설, 관저1동성당, 김광혜(요세피나), 김상도(김유현), 느루보호작업장, 당진 선교사, 대전광역시교육청, 대전동부경찰서 청소년보호계, 대전시청, 대전아동복지협회, 동구청, 문창동성당, 부산 신자, 부산가정법원, 상인축산주식회사, 서울가정법원, 서현숙, 성심당, 성우보육원, 세종시장애인복지관, 오리온재단, 용문종합사회복지관, 월평동성당, 유성구종합사회복지관, 이영직, 인천가정법원, 정류장악국, 청주지방법원, 최영철, 최창업, 코레일사회봉사단, 투썸남대전IC, 판암동성당, 한갑수, (주)흥일식품

자원봉사자

음악: 김안진, 박채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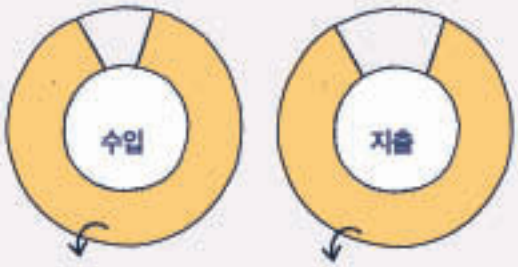
학습지도: 김성수, 박해숙, 양순일, 엄상용, 이경엽, 이세린, 이진희, 임은하, 정다임, 최선희

겨자씨 공부방: 김규연, 김다민, 박하민, 이상원, 정수원, 한진규

이용자원봉사자: 강은미, 김건희, 김민지, 김보경, 김성주, 김송숙, 김은주, 김자영, 박검지, 박선아, 박현진, 박혜영, 백인선, 손민순, 손서윤, 송격숙, 송미니, 연지영, 윤중현, 이경미, 이미경, 이영순, 이영진, 정민아, 천송이, 한성애

후원금 지정보고

2024년 7월 1일~2024년 12월 31일



90,329,829　　82,850,639

수입　　총 90,329,829원

구분	내용	금액
후원금 수입	지정 후원금	39,805,160
	비지정 후원금	50,522,706
이월금	전년도 이월금(후원금)	
잡수입	기타예금 이자수입	1,963

지출　　총 82,850,639원

구분	내용		금액
사무비	운영비	기타 후생경비	11,080
		기관운영비	100,000
		회의비	130,000
		여비	445,400
		수용비 및 수수료	10,908,776
		공공요금	167,400
		제세공과금	2,360,000
		차량비	459,000
		기타운영비	898,000
재산 조성비	시설비	자산취득비	4,460,390
		시설장비 유지비	5,460,300
사업비	운영비	피복비	300,000
		의료비	747,650
		수용기관경비	60,000
		직업재활비	260,000
		특별급식비	798,900
		연료비	886,836
	사업비	사회심리 재활 사업비	53,265,407
		자립지원사업비	1,034,000
		교육재활 사업비	75,500
	잡지출	반환금	22,000

후원 및 자원봉사 안내

무통장입금

농협
453046-55-002444
(효광원)

전화문의
042-271-7053

내원접수　본 원에 방문하셔서 후원하시는 방법입니다.

결연
- 청소년과 후원자가 1:1로 결연을 맺어 청소년이 건강하고 밝은 생활을 영위하고 정서적 지지를 받아 퇴소 후 사회복귀 및 적응이 용이하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보호자나 연고자가 없는 청소년에게 재원기간동안 면회 신청, 물품 후원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자원봉사자

노력봉사: 시설청소, 식사간 식제공, 식당지원 봉사, 생일자행사지원 등
학습봉사: 교과목 및 특기 적성 교육
(기초학습, 검정고시, 대입수학능력시험 준비)
전문분야 봉사: 축구, 헬스, 농구, 음악, 미술, 미용, 레크리에이션 등
문화체험 봉사: 문화 체험 초청

찾아오시는 길

대전광역시 동구 산내로 1305번길 48(낭월동 399번지)

버스이용 4번, 30번, 108번, 501번, 511번, 512번, 513번, 514번, 574번, 520번, 620번, 낭월차고지방향 e편한세상아파트에서 하차

자차이용 남대전 톨게이트 통과 후 5분 이내 도착

택시이용 대전역: 효광원 약 7.3km
대전복합터미널: 효광원 약 9.9km

보호치료시설 효광원